

제 목 : Living with Art

기 획 : 연오재

작 가 : 김영주, 김태호, 윤정희 + Vintage Furniture

날 짜 : 2021. 6. 1 tue - 6. 28 mon

문 의 : 양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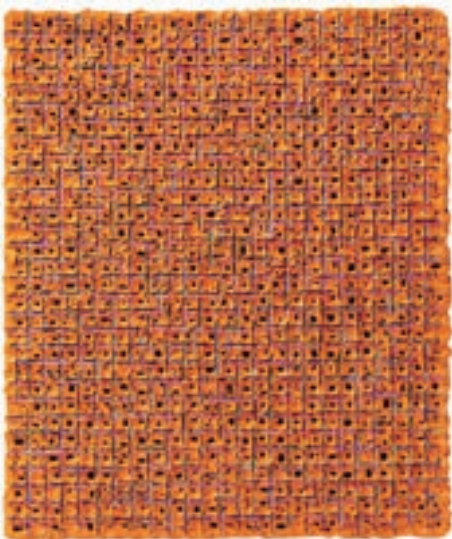
E-mail : carinofficial@naver.com

Tel. 051-747-930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B1,B2

갤러리 카린에서는 생활 속 예술품을 주제로 역량있는 국내작가 김영주, 김태호, 윤정희와 전 세계의 디자인 철학과 스토리가 탄탄한 디자이너의 빈티지 가구를 함께 선보이는 [리빙위드아트]전시를 오픈합니다.

포스트 단색화 작가로 꼽히는 김태호는 '벌집작품', 내재울 연작 시리즈로 한국 추상화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줍니다. 색감의 쌓기와 긁어내기를 통한 색다른 추상화법으로 캔버스에 그은 격자의 선을 따라 20여 개 색을 1~1.5cm 에 이르도록 쌓아올립니다. 응결된 수많은 색을 조각칼로 깎아내고 구멍을 뚫으면서 벌집 같은 겹겹의 방을 만들어 그 속에 숨어 있던 색점들이 살아나 안의 리듬과 밖의 구조가 동시에 이뤄지는 작업을 합니다.



김태호 Internal Rythm 2012-42 46.7 x 38.8cm
Acrylic on canvas 2012



김태호 Internal Rythm 2012-39 46.3. x 39.1cm
Acrylic on canvas 2012



김영주 Painterly Side 회화적 면 73x73x14cm Acrylic on canvas, wooden structure, 2019

김영주 작가는 캔버스를 이용한 입체적 회화로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미지가 아닌 물질의 경험으로 제시합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대신 캔버스 자체를 도구로 활용해 형태를 만들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표현의 문제를 넘어 미술의 근본에 문제를 던진 김영주 작가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창작한다"는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미술의 시각화=본다는 것"을 어떻게 실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차별화된 작가만의 작품으로 접근할수 있습니다.



윤정희 3 sky square loops & Tension 20
51(h)x13(w)x15(d)cm / 30(h) x 10(w) x 18(d) cm
stainless steel, thread, 2021



tension pinkred 100-20 / navy 15
yellow knots(unique), 2020

윤정희 작가는 엮기, 묶기, 꼬기의 인류 초기부터 시작된 근원적 손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섬유 오브제를 제작합니다. 간단한 매듭짓기 원리를 통하여 제작되는 작가의 작품은 급변하는 첨단 시대 속에서 인류 문화의 원형과 근원적 손기술의 가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정한 반복적 선율이 느껴지는 겹당어리 매듭시리즈는 오브제의 역할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운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유 소재의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조직감을 특징으로 작품의 부피는 작지만 단조로운 벽면과 다양한 공간을 채우며 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Tension 시리즈는 실들이 서로 당기며 만들어지는 긴장과 섬유의 촉각적 질감을 기본으로 주목해 확대하고 재조립하여 공간에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주, 윤정희, 바실리 체어 전시 전경



엠티 체어 Empty Chair (1990s)
Designer : 론 아라드 Ron Arad
WDH : 51 x 62 x 92 (cm)
SH : 45 (cm)

바실리 체어 Wassily Chair "B3"는 점, 선, 면 등 형태의 단순함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엮어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꿈꾼 바우하우스의 많은 산물 중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마르셀 브로이어의 바우하우스 정신을 구현한 대표적인 가구로 꼽힙니다.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1951년 이스라엘 출생의 영국 디자이너 론 아라드의 엠티 체어는 의자의 하단을 보면 "Empty" 체어라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on Arad Associates에서 생산한 오리지널 피스로, 특히 검은색 피스는 희귀하기 때문에 매우 희소성이 높습니다. 열과 압력을 이용해 구부린 자작나무 합판과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된 엠티체어는 부드러운 표면의 질감과 광택, 그리고 단단함 덕분에 목재로 제작되었음에도 마치 질 좋은 가죽의 표면과도 같아보입니다.

세작가의 작품과 빈티지 가구와 함께 어우러진 [Living with ART] 전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Kim Young joo

학력

2011 첼시예술대학 순수미술 석사, 런던, 영국

20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화 학사

2010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복수전공

개인전

2021 <공기의 무게>, Gallery Woong, 서울

2019 <(>>, Artbit Gallery, 서울

2018 <LOST/FOUND>, B39 부천 아트벙커, 부천

2016 <Intermission>, Gallery Dos, 서울



김태호 Kim Tae ho

학력

1948 부산출생

1984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1972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학사

개인전

2020 Pearl Lam Galleries , 홍콩

2019 대구아트페어 2019, 대구

2018 L.A Art Fair, LA 컨벤션 센터, 미국

Ashlin Gallery, 서울

Metaphysical Art Gallery, 타이완

2017 L.A 아트페어, L.A 컨벤션 센터, 미국 L.A

미즈마 갤러리, 싱가포르

아라리오 박물관, 제주도

2016 KIAF 2016, 갤러리 로, 코엑스, 서울

2015 부산미술관



윤정희 Yoon Jung hee

학력

200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섬유예술전공 졸업

2001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장식미술과 졸업

개인전

2015 유기적 레이어, 갤러리도스, 서울

2012 씨앗으로부터, 송은아트큐브, 서울

2011 되어가다, 한전아트센터갤러리, 서울

2009 불완전함의 연속, 토포하우스, 서울

